

담화의 구조

- 새로운 담화문법의 설계

이해운(서울대학교)

1. 서론

문장들은 여러 언어적 기호들을 결합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의 연쇄체를 형성한다. 예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접속사와 같은 연결어나, 툰 등의 음성적 신호, 혹은 쉼표와 같은 기호 등이 사용된다.¹⁾

- (1) (a) Auf der Tagung hat er Simon getroffen, und anschließend traf er Günter.
 (b) Auf der Tagung hat er Simon getroffen → anschließend traf er Günter ↓
 (c) Auf der Tagung hat er Simon getroffen, anschließend traf er Günter. (Zifonun et al. 1997, 2361)

이와 같은 문장들의 연쇄체를 관점에 따라 텍스트 또는 담화라고 부른다. 이를 좁은 의미에서 구분하면, 담화는 언어수행, 구어, 기술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텍스트는 언어능력, 문어, 규범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희자 1999).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의 담화와 텍스트 정의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담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층적으로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담화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Beaugrande & Dressler (1981)에 따르면, 문장 연결체가 담화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응결성 Kohesion, 응집성 Kohärenz,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특히 응결성과 응집성의 개념이 중요한 텍스트의 기준으로 간주

1) (1)(b)에서의 기호는 Progreddienz (→), Grenztonmuster (↓)를 표현한 것이다.

된다. 응결성은 담화 속의 어떤 요소를 해석하는 일이 다른 요소를 해석하는 일과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주로 대응, 생략, 접속 등의 문법적 연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응집성은 문장들간의 내용적, 인지적 결속관계에 의한 결합을 나타낸다. 즉 응결성이나 응집성은 담화의 내적 결합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문법적, 그리고 의미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두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내적 결합관계의 추론 여부에 따라 자연스런 텍스트 (2)(a) 혹은 부자연스런 내지 이해 불가능한 텍스트 (2)(b)로 각기 판단을 내리게 된다.

- (2) (a) Die Frankfurter Feuerwehr hat ein Gerät vorgestellt, mit dem Menschen aus bis 200 Meter hohen Häusern gerettet werden können. Es ist eine mobile Seilbahn, die über am Haus befestigte Seile mit einer auf einem Lastwagen fahrbaren Gondel verbunden ist. Bisher sind Feuerwehrleitern maximal 30 Meter lang.
- (b) Ich habe leider nicht genug zu lesen. Die Kommission hat den Vorschlag abgelehnt. In den Ferien bleibt niemand gern zu Hause. (Brinker 1988: 10)

본 논문에서는 담화/텍스트의 내적 구조를 분석/생성해 줄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담화 혹은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담화문법, 텍스트 언어학 내지는 텍스트문법의 이름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행해졌다.²⁾ 이러한 연구들 중 담화구조와 관련하여서는 van Dijk (1980)의 Makrostruktur, Motsch & Viehweger (1981)의 Illokutionsstruktur, Mann & Thompson (1987)의 Rhetorical Structure 등 몇몇 제안들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담화구조를 일종의 구구조 규칙으로 포착하려는 Scha & Polanyi (1988), Gardent (1994) 등의 연구선상에서 통합 Unifikation 장치를 사용한 제약기반 Con-

2) 텍스트 언어학아래에서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가 행해졌고 (H. Isenberg, T.A. van Dijk, R. Harweg, E. Coseriu, etc.), 담화문법하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M.A.K. Halliday, etc.).

straint-basiert의 이론인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Pollard & Sag 1994)을 확장하여 담화/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될 이론을 우리는 통사론에서의 구구조문법 Phrasenstrukturgrammatik에 상응하여 ‘담화구조문법 (Diskursstrukturgrammatik: DSG)’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 2절에서는 담화구조문법의 통사부를, 그리고 3절에서는 의미부를 제시한다. 끝으로 4절에서는 담화구조문법에 의한 몇몇 담화/텍스트의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의 작용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2. 통사부

임의의 이론은 원초적 요소들의 집합과, 이에 작용하는 연산들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담화구조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DSG = \langle V, R \rangle$, wobei V für Vokabular und R für Regeln steht.

즉, 담화구조문법은 기본적인 어휘목록과, 이러한 목록들간의 결합을 지시해주는 일련의 규칙들로 구성된다. 어휘목록으로서는 어휘적 요소와 논리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휘목록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들이 항상 적형식 wohlgeformtes Formula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형식을 규정해주는 일련의 규칙들이 필요하다. 이를 2.2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1 어휘

2.1.1 기본 단위

담화상의 기본 단위로서는 그간 다양한 개념들이 연구관점에 따라서 설정되어 왔다.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에 해당하는 단위를 기본 담화단위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담화들에서 보듯이, 담화단위

가 문장범주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4) (a) Auf der Tagung hat er Simon getroffen.
 (b) Auf der Tagung hat er Simon getroffen, und anschließend traf er Günter.
 (c) Karl bremst, weil ein Baum auf der Straße liegt.
 (d) den Hammer!

통사론적 관점 하에서 보면, (4)(a) 예문은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담화를 형성하고, 예문 (4)(b), (c)들에서는 각각의 독립적인 문장 범주들이 결합되어 담화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문 (4)(d)도 하나의 담화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하나의 구 범주도 담화단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원초적 담화단위에 대한 담화구조문법 내에서의 설계를 보자. 담화구조문법은 문장에 대한 기술을 행하는 HPSG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³⁾ 먼저 담화단위의 정보를 표현해줄 수 있는 유형이 필요하다. 기존 HPSG에서는 소쉬르의 *sign* 개념을 확장하여 구 Phrase 단위도 일종의 *sign*으로 취급하였는데, 본 고에서는 담화도 일종의 *sign*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확장하기로 한다.

(5) *sign* := *word, phrase, discourse_unit*

가정된 *discourse_unit* (*du*) 유형은 *sign*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서 *word, phrase*의 통사적 유형들이 갖는 정보들 (PHON, SYNSEM, DTRS) 외에도 담화정보 (DISCOURSE)를 추가로 지닌다. 통사적 정보에 한정해 보면, 담화단위는 통사적으로 문장범주 (S) 혹은 불완전한 문장범주에 해당하는 구 범주 (S/XP)의 정보를 CAT의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3) 본고에서는 HPSG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ollard & Sag (1987, 1994)와 Sag & Wasaw (1999) 참조.

라서 우리는 담화의 기본 단위로서 다음과 같이 *discourse_unit* 유형의 자 절구조를 선언할 수 있다.

$$(6) \textit{discourse_unit} := \left[\begin{array}{ll} \text{PHON} & \dots \\ \text{SYNSEM} & [\text{CAT } S \vee S/XP] \\ \text{DTRS} & \dots \\ \text{DISCOURSE} & \dots \end{array} \right]$$

2.1.2 담화 연산자

담화구조문법에서 가정되는 논리적 어휘들로서는 다양한 문장 연결부호와 담화 표지들 (discourse marker, cue phrase)의 담화연산자를 가정하기로 한다. 먼저 문장 연결부호로는 다음의 목록을 가정한다.

(7) (Komma), ; (Semikolon), : (Deppelpunkt), Φ

위의 목록에서 보면, 일반적인 연결부호 이외에도 공연산자인 Φ 를 가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결부호가 출현하지 않는 담화/텍스트를 위해 이론 내적으로 가정된 논리적 어휘이다. 담화 표지로서는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문장부사들을 들 수 있다. DUDEN (1995)에서 제시되고 있는 독일어의 담화 표지들을 품사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8) (a) 종속 접속사: während, indem, solange, sobald, nachdem, als, wenn, sobald, bis, bevor, ehe; weil, da, zumal; so daß, als daß, daß; obgleich, obwohl; während, wohingegen; (in)sofern, (in) soweit, soviel; wenn, falls, sofern, soweit; damit; indem
- (b) 등위 접속사: und; denn; aber; oder, entweder - oder; allein, nur, sondern, (je)doch
- (c) 문장부사: danach, davor, dabei; deswegen, nämlich, meinethalben; so, demzufolge, also, somit, mithin, folglich; trotzdem, dennoch,

gleichwohl, immerhin; hingegen; insofern, soweit, jedoch, allerdings,
doch, indes; notfalls, sonst, ansonsten, andernfalls, ...

2.2 담화 규칙

앞 절에서 제시된 어휘목록과 담화연산자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담화단위가 형성된다. 먼저 하나의 담화단위는 나름의 담화단위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연산자가 출현할 경우, 그 결합가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의 담화단위들이 주어지면 새로운 담화단위를 형성한다. 이를 규칙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a) P가 *discourse_unit* 유형이면, P는 적형식이다.
(b) R이 n-가의 담화연산자이고, Φ_1, \dots, Φ_n 이 적형식이면,
 $R(\Phi_1, \dots, \Phi_n)$ 은 적형식이다.⁴⁾

위의 규칙에 따라 우리는 여러 담화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먼저 담화 연산자로서 문장 연결부호가 나타나는 예들이다.

- (10) (a) Du hast das Spiel verloren.
(b) Du hast das Spiel verloren: Du mußt zahlen.
(c) Sie blieben stehen, schüttelten den Kopf, gingen weiter ...
(d) Grammatiken bilden kohärente Texte. Sie sollten auch
fortlaufend gelesen werden. (Zifonun et al. 1997)

예문 (10)(a)는 S 범주로서 *discourse_unit* 유형의 담화단위이므로, (9) (a)에 의해 허용되는 적형식이다. 예문 (10)(b)-(d)에서는 규칙 (9)(b)에 따라 담화연산자 :, ,, Φ 등이 사용되어 형성된 담화단위이다.⁵⁾ 그리고 일반

4) 개별 담화 연산자들의 결합가나, 담화단위들과 연산자간의 올바른 배열 등은 개별 언어의 고유한 규칙에 따른다고 보자.

5) 예문 (c)에서는 첫번째 담화단위 S와 두번째 담화단위 S/NP가 연산자 ,에 의해

적인 담화연산자가 출현하여 새로운 담화를 형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1) (a) Bruno spielt exzellent Tennis, aber Hans ist eine Niete.
 (b) Der Strom war ausgefallen. Daher ging das Licht aus.
 (c) Wenn man Knollenblätterpilze isst, vergiftet man sich.
 (d) Jackie griff zum Feuerzeug und steckte sich eine Zigarette an.

예문 (11)(a)-(c)는 두 S 범주의 담화단위들이 담화표지 *aber, daher, weil*에 의해 각기 연결된 모습이고, 예문 (11)(d)는 S와 S/NP 범주의 담화단위들이 담화표지 *und*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 (9)에 의해 모두 허용되는 담화구조문법의 적형식들이다.

다음은 담화규칙 (9)에 의해 생성된 담화단위가 갖는 통사적 정보들을 살펴보자. 최근 HPSG 이론에서는 기존에 규칙, 원리 등의 형태로 제시된 이론 내적 기재들을 단어나 구의 정보표현 형태인 자질구조로 제시하는 ‘구성물 construction’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Sag & Wasaw 1999).⁶⁾ 본 고에서도 이에 따라 구성물 개념을 사용하여 담화단위의 통사적 정보를 표현하도록 한다. 담화규칙 (9)(a)에 의한 담화단위의 자질구조는 앞서 (6)에서 제시하였다. 담화규칙 (9)(b)와 관련된 담화단위의 경우, 출현하는 담화연산자에 따라 하위 담화단위들이 갖는 통사적 지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담화유형 *discourse_unit*를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하기로 하자.

- (12) *coordinate_du, subordinate_du*

각각의 하위유형의 결합모습은 D_DAUGHTERS의 값 내에 다음과 같이 상이한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하위 유형들의 상이한

연결된 적형식이고 ((9)(b)), 이 적형식은 다시금 세번째 담화단위 S/NP와 연산자,에 의해 연결되어 적형식을 이루게 된다.

6) 이론 내의 모든 기재들을 구성물이라는 통일적인 기술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기재들 상호간의 작용을 구성들간의 ‘제약 constraint’들로 파악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통사적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

$$(13) (a) \textit{coordinate_du} := \left[\begin{array}{l} \dots \\ \text{D_PARTICLE} \quad \textit{sign} \\ \text{D_DAUGHTERS} \quad \left[\begin{array}{l} \text{CONJ_DTR_1} \quad \textit{du} \\ \text{CONJ_DTR_2} \quad \textit{du}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b) \textit{subordinate_du} := \left[\begin{array}{l} \dots \\ \text{D_PARTICLE} \quad \textit{sign} \\ \text{D_DAUGHTERS} \quad \left[\begin{array}{l} \text{MAIN_DTR} \quad \textit{du} \\ \text{SUB_DTR} \quad \textit{du}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의 자질구조 선언에서 보면, 각 하위유형들은 D_DAUGHTERS의 값이 상이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질구조로 표현되어 있고, 이에 관련되는 담화연산자들이 D_PARTICLE의 값에 명시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coordinate_du* 유형의 D_PARTICLE 값으로는 등위접속사와 몇몇 문장부사들이 나타나고, *subordinate_du* 유형에서는 종속접속사와 다수 문장부사들이 이 D_PARTICLE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다음 절의 의미부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자.

3. 의미부

앞 절에서는 담화구조문법의 통사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통사부에 상응하는 의미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통사부가 어휘목록들의 올바른 표층적 나열인 적형식을 규정한다면, 의미부는 이 적형식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인 이론의 의미해석에 따라 우리는 명제들의 집합 \mathbf{P} 와, 통사부의 기본 어휘를 \mathbf{P} 에 사상시키는 함수 \mathbf{F} 로 구성된 해석모형 $\mathbf{M}_{\text{DSG}} = \langle \mathbf{P}, \mathbf{F} \rangle$ 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모형에 기초해서 통사부를 해석하도록 하자.

3.1 담화단위의 의미

통사적으로 담화단위는 범주 S, 혹은 S/XP 형태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사적 범주 외에도, 의미론적 관점 하에서 사태를 표현하는 명제 Proposition를, 또는 화용론적 관점 하에서 발화수반행위 Illokution를 기본적인 담화단위로 가정하는 연구들도 있다. 통사적 범주로만 담화단위를 규정할 경우 다음 예문들간의 차이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14) (a) Karl bremst, weil ein Baum auf der Straße liegt.

(b) Paula bemerkt, dass sie verfolgt wird.

(15) (a) (Ich möchte) den Hammer (haben)!

(b) der Mann

(14)의 두 예문들에서 우리는 (a)와는 달리 (b) 예문을 두 담화단위의 결합으로 보지는 않는다. 통사적으로는 둘 다 문장범주들의 결합이지만, (b)의 경우 주문장과 보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 하나의 발화수반행위만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구 범주가 하나의 담화단위로 인식되는 (15)의 경우, 우리는 (a)와는 달리 (b) 예문을 하나의 담화단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자에서 하나의 명제, 나아가 하나의 발화수반행위를 문맥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지만, 후자에서 이러한 추출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통사적으로 S 혹은 S/XP 범주로 실현된 구 범주가 올바른 담화단위로 작용하려면, 의미적으로 명제를, 그리고 화용론적으로는 발화수반행위를 표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앞서 통사부에서 제시한 담화단위의 자질구조 (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16) \quad \left[\begin{array}{l} \text{PHON} \\ \text{SYNSEM} \\ \text{DTRS} \\ \text{DISCOURSE} \end{array} \left[\begin{array}{l} \dots \\ \text{CAT} \quad S \vee S/XP \\ \text{CONTENT} \quad [1]_{psoa} \\ \text{CONTEXT} \quad illoc_act \\ \dots \\ \text{D_SEMANTIC} \quad [1] \end{array} \right] \right]$$

discourse_unit

즉, S 또는 S/XP 범주는 명제 *psoa*를 CONTENT의 값으로, 그리고 특정 발화수반행위를 CONTEXT의 값으로 지닐 경우에만 올바른 담화단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CONTENT의 값이 바로 담화단위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에 제시된 자질구조는 규칙 (9)(a)에 의해, 즉 하나의 담화단위에 의해 구성된 담화단위의 정보를 표현해 주고 있다. 다음은 통사규칙 (9)(b)에 따라 형성된 담화단위의 의미를 살펴보자.

통사규칙 (9)(b)에 의하여 새로이 형성된 담화단위의 의미는 이어지는 다른 담화 단위들과의 결합시 그 담화구조 형성에 어떤 기반을 제공한다. 새로이 형성된 담화단위가 하위 담화단위들의 의미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적 내용을 지녀야하는가는 담화구조에 따라, 즉 담화단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coordinate_du* 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하위 담화단위들 간에 공통의 명제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자질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ee 1998).

$$(17) \quad \left[\begin{array}{l} \dots \\ \text{D_SEMANTIC} \quad / [1] \cap [2] \\ \text{D_DAUGHTERS} \quad \left[\begin{array}{l} \text{CONJ_DTR_1} \quad [\text{D_SEMANTIC} \quad [1]] \\ \text{CONJ_DTR_2} \quad [\text{D_SEMANTIC} \quad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coord_du

위 구조에서 상위 담화단위의 의미는 각각 하위 담화단위 의미의 일반화 (Generalisierung, \cap)작업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subordinate_du* 유형의 담화단위에서는 주문장에 해당하는 담화단위의 의미가 결정적이고, 종속되는 담화단위는 단지 부가적 의미만을 전달할 뿐, 상위층위

의 텍스트 흐름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위 담화 단위의 의미는 주문장에 해당하는 담화단위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자질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8) \quad \underset{sub_du}{\left[\begin{array}{l} \dots \\ D_SEMANTIC \\ D_DAUGHTERS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1] \\ \left[\begin{array}{ll} MAIN_DTR & [D_SEMANTIC \quad [1]] \\ SUB_DTR & phras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3.2 담화관계

다음은 가정된 해석모형 M_{DSG} 에 의해서 담화단위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자. 해석모형 M_{DSG} 에서 함수 F 는 개개의 담화단위를 각각의 (발화수반행위를 갖는) 명제에 사상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함수 F 의 작용은 담화단위 *discourse_unit* 유형들의 $D_SEMANTIC$ 값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른 한편, 함수 F 는 또한 논리적 어휘들을 담화관계들 *Diskursrelationen*로 사상시켜 준다. 담화관계는 각기 적절한 $D_SEMANTIC$ 의 값을 부여받은 담화단위들 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해석모형 내에서 기본 어휘들에 대한 사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담화단위들을 해석해 낼 수 있다. 즉, 하위 담화단위들의 쌍이 연산자에 대응하는 집합의 원소이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짓이 된다.

담화 연산자의 의미적 대응체로서 가정하는 담화관계들에 대한 목록은 연구들마다 각기 상이하게 가정하고 있다.⁷⁾⁸⁾ 본 고에서는 Polanyi (1995),

7) 우리의 모형에서 연산자들은 의미적으로 담화관계들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담화관계의 표현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반드시 담화연산자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언어의 전산처리를 염두에 두고 담화를 다룬 최근 연구들에서는 담화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들을 가정하고 있다: 첫째는, 술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담화단위의 의미가 담화관계를 결정한다. 즉, 술어의 의미적 속성, 시제, 보조어들의 속성 등이 구체적인 담화관계를 미리 내정할 수도 있다. 둘째로는 담화단위 내에

Sanders et al. (1992)의 작업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목록들을 가정하기로 한다.

- (19) (a) list, enumeration, contrast, ...
 (b) cause, concession, condition, instrument, ...

함수 **F**에 의하여 이러한 담화관계들은 담화연산자들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담화단위에 대한 함수 **F**의 작용과 유사하게, 우리는 담화연산자에 대한 함수 **F**의 작용을 담화 연산자의 자질구조 내에 반영하기로 한다. 따라서 개개의 담화 연산자들은 자질구조 내에 관련되는 담화관계의 정보를 D_RELATION의 값으로 갖는 것으로 가정하면, 몇몇 담화연산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질구조를 배당할 수 있다.

- (20) (a) < und, $\left[\begin{array}{l} conj \\ D_RELATION \quad list_rel \end{array} \right] >$
 (b) < weil, $\left[\begin{array}{l} complementizer \\ D_RELATION \quad cause_rel \end{array} \right] >$
 (c) < so, $\left[\begin{array}{l} adverb \\ D_RELATION \quad consequen\ae_rel \end{array} \right] >$

다음은 담화관계들이 표현하는 구체적인 자질구조의 모습을 살펴보자. (19) (a)에 제시된 담화관계들은 하위 담화단위들의 의미내용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등위적 관계들이며, (19)(b)의 담화관계들은 하위 담화단위들의 의

포함되어 있는 담화 연산자들에 의해서 담화관계가 암시될 수도 있다. 셋째로는 담화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백과사전 지식 내지는 상식 등 일반 지식에 의해서도 그 담화관계가 포착될 수도 있다 (Grosz & Sidner 1986, Polanyi 1995). 이러한 세 요소들의 가정은 부분적으로는 텍스트 언어학에서 가정하는 응결성과 응집성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첫 단계로서 담화 연산자에 의해 표현되는 담화관계에 한정하여 이론을 설정하도록 한다.

- 8) 담화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은 현재로서는 Sanders et al. (1992)를 제외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내용들에게 상이한 지위를 부여하여 연결하는 종속적 관계들이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상이한 부가어의 설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21) (a) \textit{list_rel} = \begin{bmatrix} \textit{RELATION} & \textit{list} \\ \textit{CONJ1} & \textit{psoa} \\ \textit{CONJ2} & \textit{psoa} \end{bmatrix}$$

$$(b) \textit{cause_rel} = \begin{bmatrix} \textit{RELATION} & \textit{cause} \\ \textit{SUBORDINATED} & \textit{psoa} \\ \textit{SUBORDINATOR} & \textit{psoa}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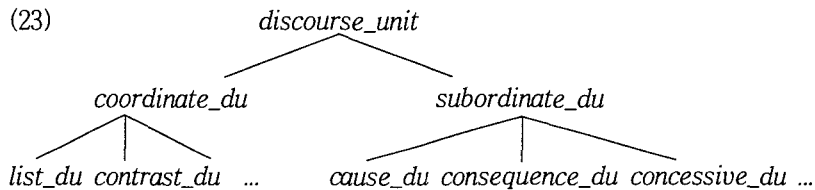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함수 F의 작용으로 각각의 통사적 단위들, 즉 담화 단위와 담화 연산자들의 의미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통사규칙에 의하여 형성된 담화단위들이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살펴보자.

3.3 해석

통사규칙의 적용을 받아 형성된 담화단위는 하위 담화단위들과 담화연산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사적 적형식인 담화단위들 모두가 의미적으로 해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제시된 예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 담화단위들 간에 어떠한 내적 결합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 결합관계의 존재여부는 출현하는 담화연산자의 의미, 즉 담화관계와, 개개 하위 담화단위들의 의미들 간의 상응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담화 참여자들이 지닌 이전 지식에 상당히 의존하므로 이를 담화구조문법 내에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응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우리는 담화구조문법 내에서 새로이 형성된 담화단위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는 있다. 즉, 담화단위는 그 구성성분으로 나타나는 담화연산자가 표현하는 담화관계에 의하여 하위 담화단위들을 의미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종의 담화원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22) Diskursrelation-Prinzip:
$$\left[\begin{array}{l} D_PARTICLES \quad \{\} \\ D_RELATION \quad [I] \\ D_DRTS|...|D_PRTS \quad \left[\begin{array}{l} \dots \\ D_RELATION [I]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위 원리에 따르면, 상위 담화단위의 D_RELATION 값은 그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임의의 하위 담화단위 내에 나타나는 담화 연산자 (D_PARTICLES)의 D_RELATION 값과 공지시 관계를 지냄으로써, 담화 연산자가 표현하는 담화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담화단위 유형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상위 담화단위의 D_PARTICLES 값은 공집합으로 제시되어, 이미 처리된 담화연산자는 더 이상 상위 단위로 상속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다양한 담화단위들의 정보는 담화연산자에 의해 결정되고, 그 유형 또한 담고 있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나타나는 담화관계의 종류에 따라 앞서 제시한 담화단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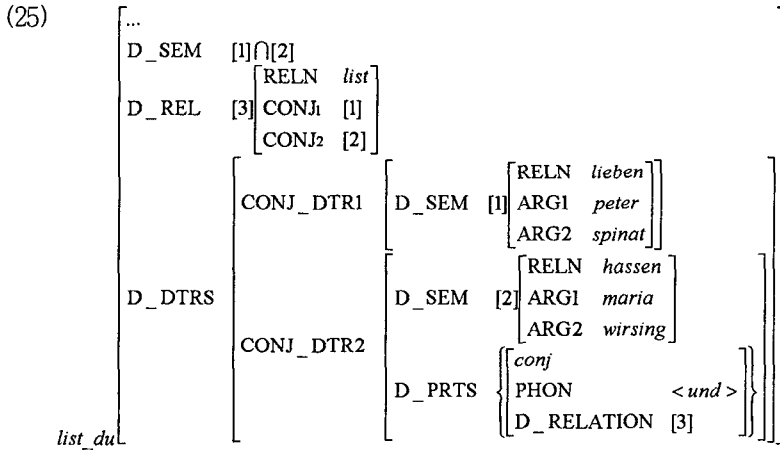
즉, *coordinate_du* 유형의 하위 유형들은 (19)(a)의 등위적 담화관계들이 출현함으로써, 그리고 *subordinate_du* 유형의 하위 유형들은 (19)(b)의 종속적 담화관계들이 나타남으로써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

본 절에서는 담화연산자로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등장하는 텍스트를 각기 분석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담화구조문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해운 (1999)에서 다루었던 다음의 예문을 위의 담화구조문법으로 다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구조를 형성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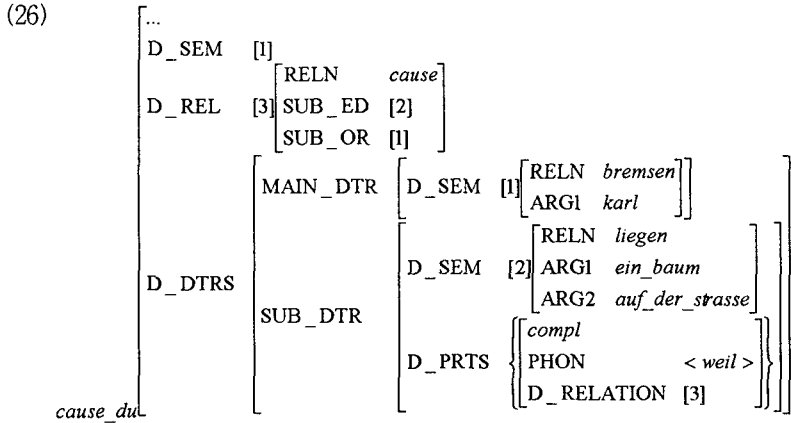
(24) Peter liebt Spinat, und Maria haßt Wirsing.



두 번째 접속 단위문에는 담화 연산자로서 *und*가 등장한다. 앞서 (20)(a)에 제시된 어휘부의 정보를 보면, *und*는 *list_rel*를 D_RELATION의 값으로 갖는다. 이 값은 (22)에 제시된 Diskursrelation-Prinzip에 의하여 상위 담화 단위 내의 D_RELATION 값과 공지표 관계를 맺게 된다. D_RELATION의 값으로 *list_rel*를 갖는 담화단위 유형은 *list_du* 유형이므로, 따라서 예문 (24)은 위 정보구조 (25)를 갖게 된다.

다음은 종속 접속사가 담화연산자로 등장하는 다음 예문을 분석하여 보자.

(4)(c) Karl brems, weil ein Baum auf der Straße liegt.



담화 연산자 *weil*의 등장으로 담화단위의 D_RELATION의 값은 *weil* 어휘부의 정보에 의하여 *cause_rel*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전체 담화단위는 *cause_du* 유형을 배당 받게 된다. 이 유형은 선언된 자질정보에 의하여 D_SEMANTIC의 값으로서 주문장에 해당하는 담화단위의 의미를 자신의 의미 내용으로 갖게 된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담화연산자 *weil*의 담화관계 정보는 더 이상 상위 층위로 상속되지 않으므로, 다음에 나타나게 될 다른 담화 연산자에 의해 다음의 담화단위와 연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부에서 제시된 규칙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담화단위에 대해 본 절에서 제시한 의미해석을 가한다면, 이해 가능한 담화를 생성 또는 해석해낼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담화의 구조를 생성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문법으로서 담화구조문법을 제시하였다. 이 문법은 담화층위의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 HPSG를 기반으로 확장된 이론이다. 2절 통사부에서는 이론의 기본 단위들과 이들의 결합관계를 지시해 주는 통사규칙이 제시되었다. 3절 의미부에서는 통사부에서 허용된 담화단위에 올바른 해석을 가하는 모형을 제

시하였고, 이에 따라 통사규칙에 의해 형성된 담화단위의 의미해석과 관련된 이론 내적 장치들을 설정하였다. 특히 Diskursrelation-Prinzip의 설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화연산자가 지닌 담화관계의 정보에 의하여 하위 담화단위들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았다. 끝으로 4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이론에 의거하여 담화연산자 *und*와 *weil*에 의해 연결된 담화를 분석하여 보았다.

본고에서는 담화구조문법의 기본적인 이론적 틀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다양한 담화현상을 다루기에는 아직 그 이론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담화현상들, 예를 들어 대용어, 시제, 복수명사 등을 다루어 가면서 본고에서 제시된 여러 이론 내적 장치들이 보완 내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부 록

Das System von Diskursstrukturgrammatik *DSG*

I Syntax

1. Das Vokabular von *DSG* besteht aus

- einer (abzählbar) unendlichen Menge von Individuenkonstanten *S*:
 - s_1, s_2, \dots, s_n
 - $s_1/xp^+, s_2/xp^+, \dots, s_n/xp^+$,
- einer (abzählbar) unendliche Menge von *n*-stelligen Relationskonstanten *R*:
 - „ ; ; Φ
 - und, aber, weil, deswegen, so,
- den Klammersymbolen: (,).

2. Eine Formel von *DSG* sei wie folgt induktiv definiert:

- Sei *s* Individuenkonstant, so ist *s* eine Formel;
- Es seien $n \geq 0$ eine natürliche Zahl, R^n eine *n*-stellige

Relationskonstante und s_1, \dots, s_n n Formeln, dann ist $R^n(s_1, \dots, s_n)$ eine Formel.

II Semantik

1. Das Modell der Interpretation \mathbf{M} ist ein Tupel $\langle \mathbf{P}, \mathbf{F} \rangle$, wobei
 - \mathbf{P} eine Menge der Propositionen ist, i.e. $\{p_1, p_2, \dots, p_n\}$ und
 - \mathbf{F} eine totale Funktion von \mathbf{V} nach \mathbf{P} ist. i.e. für $v_i \in \mathbf{V}$,
 - wenn v_i eine Individuenkonstante ist, $\mathbf{F}(v_i) = p_i$
 - wenn v_i eine n -stellige Relationskonstante ist, $\mathbf{F}(v_i) =$ eine Menge von n -Tupel der Propositionen.
2. Sei \mathbf{I} eine Interpretationsfunktion über \mathbf{M} . Dann lassen sich syntaktische Formeln wie folgt interpretieren:
 - $\mathbf{I}(s_i) = \mathbf{F}(s_i)$.
 - $\mathbf{I}(R^n(s_1, \dots, s_n)) = 1$ gdw. $(\mathbf{I}(s_1), \dots, \mathbf{I}(s_n)) \in \mathbf{I}(R^n)$.

참고문헌

- 이해운 (1999), '등위 접속문의 통사구조, 의미구조, 담화구조'. 독일문학 71, 474-498.
- 장석진 (1994), 통합 문법론: 담화와 화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희자 (1999), 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Beugrade, R. de & W.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Brinker, Klaus (1988),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Erich Schmidt Verlag.
- Duden (1995),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g. von G. Drosdowski u.a. Mannheim: Dudenverl.
- Gardent, C. (1994), Discourse Multiple Dependencies, ILLC Research Report and Technical Notes Series LP-94-18. Amsterdam: ILLC.
- Grosz, B. & C. Sidner (1986), Attentions, intentions and the structure of

- discour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12, 175-204.
- Lang, E. (1977), *Semantik der koordinativen Verknüpfung*, Berlin: Akademie-Verlag.
- Lee, H.-Y. (1998), *Ellipsen in Satzkoordinationen*, Frankfurt a.M. et al.: Peter Lang.
- Mann, W. & S. Thompson (1987), *Rhetorical structure theory: a theory of text organization*, California: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 Motsch, W. & D. Viehweger (1981), Sprachhandlung, Satz und Text, In: I. Rosengren (Hg.), *Sprache und Pragmatik*. Lund, 125-153.
- Partee, B. H., A. ter Meulen & R. E. Wall, (1990), *Mathematical Methods in Linguistic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olanyi, L. (1985), A Theory of Discourse Structure and Discourse Coherence, In: *Papers from the General Session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LS 21*, 306-322.
- Polanyi, L. (1995), *The Linguistic Structure of Discourse*, ms.
- Pollard, C. &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Stanford: CSLI.
- Pollard, C. &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Stanford: CSLI/Uni. of Chicago Press.
- Sag, I. A. & T. Wasow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CSLI.
- Sanders, T., W. Spooren & L. Noordman (1992), Toward a Taxonomy of Coherence Relations, In: *Discourse Processes* 15, 1-35.
- Scha, R. & L. Polanyi (1988), An Augmented Context Free Grammar for Discourse, In: *Proceedings of COLING-88*, 573-577.
- van Dijk, T. A. (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führung*, Tübingen.
- Zifonun, G., L. Hoffmann & B. Strecker (Hgg.) (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Walter de Gruyter.

Zusammenfassung

Die Analysen von Diskursstrukturen anhand einer neuen Diskursgrammatik

Lee, Hae-Yun(Seoul National Univ.)

Bei vorliegender Arbeit wurde eine sogenannte Diskursstrukturgrammatik (DSG) vorgestellt, die auf die Erklärung von verschiedenen diskursbezogenen Phänomenen zielt, und deren Grundlage au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basiert.

Im Abschnitt 2 wurde die Syntax von DSG gegeben. Die Syntax besteht aus Grundsymbolen und Regeln. Die Grundsymbole teilen sich wiederum in grundlegende Diskurseinheiten und logische Konnektoren ein. Entsprechend der Syntax wurde die Semantik im Abschnitt 3 gegeben. Insbesondere habe ich das Diskursrelation-Prinzip aufgestellt, nach dem die Information eines Konnektoren die Bedeutung der neu gebildeten Diskurseinheit bestimmt. Im letzten Abschnitt 4 habe ich anhand der DSG zwei Beispiele analysiert, um zu zeigen, wie die DSG funktioniert.

Von der Theorie aus gesehen, ist die vorgestellte DSG nicht vollständig. Deshalb werde ich weiter die DSG systematisieren, indem ich andere Phänomene im Bereich des Diskurses wie Anapher, Tempus usw. behandle